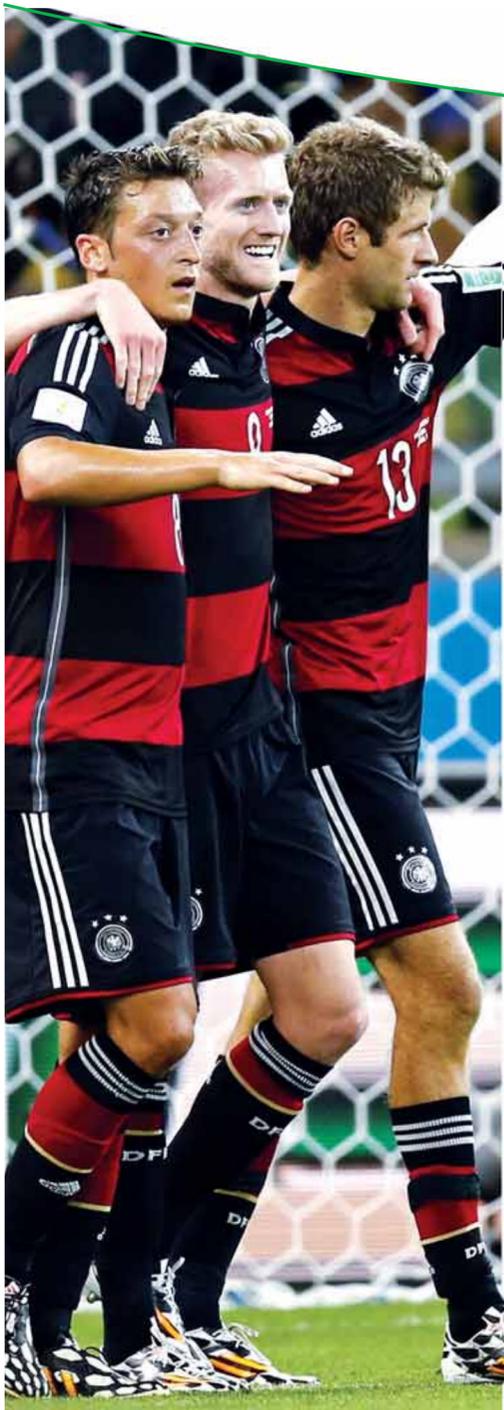


24년만에... 운명처럼 만났다



독일 외질·슈틀레·뮐러



아르헨티나 메시·로메로

독일-아르헨, 역대 월드컵 결승서 2번 만나 1승1패 창 vs 방패, 유럽 vs 남미...최강 놓고 자존심 대결

진격의 '전차 군단' 독일과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라는 절대적인 '인자'를 앞세운 아르헨티나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을 놓고 '진검 승부'를 펼친다.

오는 14일(한국시간) 브라질 '축구의 성지'인 리우 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리는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대회 결승전은 양 팀의 세 번째 결승 맞대결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어김없이 '우승 후보'로 꼽혀 온 양 팀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만큼 한 치의 양보 없는 혈투가 예상된다.

특히 유럽과 남미를 대표하는 '맹주'의 자존심을 건 맞대결이라는 점은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 한 번씩 주고받은 결승전...이번에는 누가 웃을까 = 독일은 이번 대회까지 역대 최다인 8회, 아르헨티나는 5회 결승에 진출해 양 팀 모두 그야말로 월드컵 결승전의 '단골손님'이라 불릴 만하다. 그 중 세 번이 두 나라의 맞대결이다.

'화력전'이 펼쳐진 1986년 멕시코 대회 결승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서독을 3-2로 누르고 통산 두 번째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양팀은 4년 뒤 이탈리아에서 다시 결승전에서 만났으나 당시 서독이 안드레아스 브레메의 페널티킥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 3번째 정상에 올랐다. 두 나라 모두 서로와의 대결에서 차지한 우승이 마지막이었다.

◇ 막을 자 없는 '전차 군단' 분위기 최고조 = 독일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죽음의 조' 가운데 하나로 꼽힌 G조에서 미국, 포르투갈, 가나를 제치고 2승 1무로 1위에 올라 16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토너먼트 첫 경기인 16강전에서 '복병' 알제리를 만나 위기를 맞았다.

당시 독일은 알제리와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2-1로 어려운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전선에 머구름이 끼기도 했다.

하지만 8강전에서 유럽 대륙의 라이벌 프랑스를 1-0으로 누른 데 이어 4강전에서는 통산 6번째 우승을 꿈꾸던 개최국 브라질에 7-1 대승을 거둬 기세가 완전히 올랐다.

특히 브라질과의 준결승은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기록적인 대승이라 결승전을 앞둔 독일 선수들의 사기는 극에 달했다.

독일이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단연 2회 연속 월드컵 득점왕에 도전하는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사이아 미로슬라프 클로제(라치오) 등이다. 두 선수는 모두 브라질을 상대로 골맛을 봤다.

또한 '특급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의 선방이 매 경기 불을 뿜으면서 아르헨티나의 호화 공격진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주목된다.

◇ 2회 연속 8강서 독일에 '무릎'...아르헨티나 '이번에는 이긴다' = 아르헨티나로서는 어쩌면 가장 피하기를 원하면서도 만나고 싶었던 상대가 독일이었을지 모른다.

지난 2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8강에서 독일에 저점을 찔렀던 기억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2006년 홈 팀 독일과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했고, 4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클로제에게 2골, 뮐러에게 1골을 헌납하는 등 0-4로 완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인 메시의 영향력이 극에 달한 가운데 모처럼 우승의 꿈을 부풀리고 있다.

앞선 2개 대회에 모두 아르헨티나를 대표해 월드컵에 나섰으나 우승을 이루지 못했던 메시가 이번에는 독일을 넘고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에서 다소 수월하다고 평가된 F조에 포함돼 3연승으로 1위에 올랐지만, 토너먼트에 들어서는 득점력이 다소 아쉬웠다.

스위스와의 16강전, 벨기에와의 8강전에서는 모두 1-0으로 승리했고, 네덜란드와의 4강전에서는 네덜란드와 득점 없이 비긴 끝에 승부차기에서 이겼다.

/연합뉴스

메시 / 마라도나 재림이나 새 카이저 탄생이나 / 뮐러

세계 최고 골잡이들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진검 승부가 펼쳐진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모나코), 네덜란드의 아린 로번(바이에른 뮌헨) 등 많은 스타가 떠나갔고 단 두 명의 공격수가 가장 높은 자리 앞에 섰다. 오는 14일(한국시간) 펼쳐지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와 독일을 이끌 선수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다. 설명이 무의미한 슈퍼스타 메시는 이름값에서 뮐러와 차원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이미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칭송받지 못하는 팀 전술의 한계로 고개를 숙이는 일이 많았다. 2006년 독일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메시는 이번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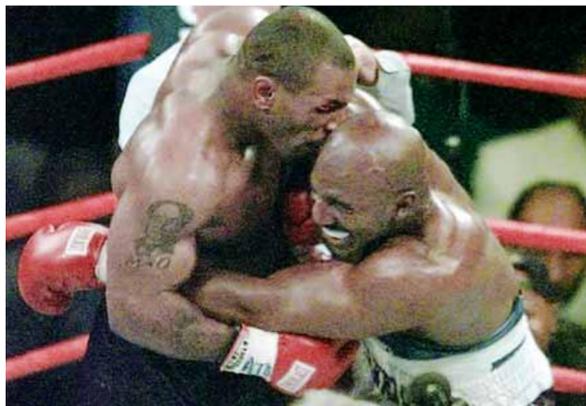
회 들어 자신에게 큰 재량권을 부여한 알레한드로 사베야 감독의 지원 아래 네 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를 이끌고 있다. 월드컵 우승은 그가 고국 아르헨티나의 축구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맞서는 '전차군단' 독일의 주력 아포는 뮐러다. 2010년 남아공 대회서 다섯 골로 득점왕에 오른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지금까지 다섯 골을 넣어 25세 나이에 이미 월드컵 통산 10골을 기록했다. 뮐러는 결승전에서 한 골만 더하면 사상 초유의 2개 대회 연속 득점왕에 오른다. 콜롬비아의 로드리게스와 여섯 골 동률이 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도움에서 3개로 로드리게스(2개)보다 앞선 뮐러가 '골든 부트'의 주인공이 된다. 메시와 호날두가 양분해온 세계 최고 선수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승부는 뮐러나 메시가 아닌 다른 선수들의 발끝에서 결정 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독일은 뮐러가 아니라도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토니 크로스(이상 바이에른 뮌헨), 사미 케디라(레알 마드리드), 안드레 슈틀레(레시) 등 주축 선수들의 감각이 살아있고 대부분 골맛도 본 상태다. 이에 반해 아르헨티나는 세르히오 아케로(맨체스터 시티), 에세키엘 라베시(파리 생제르맹), 곤살로 이과인(나폴리) 등 전방에서 메시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 역할을 해주던 측면의 앙헬 디마리아(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으로 4강전에 결장했고 결승전 출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결국 독일은 아르헨티나 전술의 핵심이자 심장인 메시를 에워쌀 것이 뻔한 데 반해 아르헨티나는 뮐러 한 명만 쫓아다녀서는 곤란하다. 메시가 월드컵마저 자신의 트로피 전열장에 추가하며 진정한 황제로 거듭날지, 뮐러가 역사상 최초의 연속 득점왕 타이틀로 새로운 '카이저'로 등극할지는 나흘 뒤 결정 난다.

/연합뉴스

월드컵 이모저모 / 독일, 우승하면 포상금 1인당 4억원 '원조 핵이빨' 타이슨, 수아레스 두둔

○... '전차 군단' 독일이 브라질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30만 유로(약 4억원)씩 주기로 했다. 독일 dpa통신은 10일(한국시간) 독일축구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준우승하더라도 1인당 15만 유로씩 보너스가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은 9일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준결승에서 7-1로 대승을 거두고 결승에 선착, 14일 아르헨티나와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이번 대회에는 32개 본선 참가국에 참가 수당으로 150만 달러(약 15억원)씩 주고 성적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우승국에 3500만 달러(약 354억원), 준우승국에는 2500만 달러의 상금을 준다. ○... '핵이빨'끼리는 통하는 걸까. 전프로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48·미국)이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상대 선수를 깨무는 기행을 또 벌인 우루과이 축구대표팀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27·리버풀)를 두둔하고 나섰다. 타이슨은 10일 미국판 지식인 사이트인 '레딧닷컴'에서 한 사용자가 '수아레스가 사고를 친 원인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하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분석을 하고 나섰다. 그는 "한순간의 열정과 뜨거운 피, 진정한 경쟁의식 때문"이라면서 "그런 순간이 엄습할 때면 우리는 진짜 경쟁적으로 변하고 나쁜 판단을 내리곤 한다"고 설명했다.

타이슨은 1997년 복싱 헤비급 타이틀 전 2라운드에서 에번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는 <사진> 역사에 남은 기행을 벌였다. 이후 타이슨은 수차례 복귀전을 가졌으나 연전 연패했다.

/연합뉴스